

4/26(화) 대상 11-14장 무엇이 다를까?

역대기는 사무엘/열왕기서와 비교하며 읽는 맛이 있습니다.

비슷한 듯 다른 이야기를 읽으며 <무엇이 다를까? 왜 다를까? > 질문할 때
당시 백성들이 가졌던 고민과 결단, 소망과 믿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

역대기는 앞의 책과 달리 모든 역사적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.

<공동체 재건>에 유의미한 사건을 발췌하고 부연하여 소개합니다.

❶ 역대기는 <하나의 이스라엘>이던 때를 상기합니다.

때문에 다윗 왕의 헤브론 시대를 먼저 언급하지 않고(삼하1-4장 비교),

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<통일왕국>시대부터 시작합니다(11:1-3, 29:27 참고).

한 왕 아래 한 공동체를 이뤘던 시절의 기쁨과 평화를 떠올립니다(12:17-18, 38-40).

❷ 역대기는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로 <영적 결집>을 꼽습니다.

때문에 왕의 즉위와 예루살렘 점령 기사 바로 다음으로 <언약궐 운반>을 기록합니다.

언약궐은 여전히 북 왕국 영성의 중심이던 <출애굽 전통>을 상징합니다.

다윗이 언약궐을 모셨다는 것은 출애굽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며

남북이 한 신앙 안에 결집해야 한다는 비전 제시이기도 합니다.

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예배공동체!

온 이스라엘은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.

역대기는 사무엘하와 달리 언약궐 운반의 <숨은 주역들>을 드러냅니다(13:1-4).

준비 단계부터 실행까지 <모든 백성>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(13,15장).

다윗은 이 일에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살피는 참 지도자로 그려집니다(13:2).

우리의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?

❶ <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예배 공동체>의 정체성이 확고합니까?

❷ 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까, 여러 이유로 불참하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대상 11-14장

다윗 하나님께 귀 기울인 예배자	사울 청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사람
하나님께 물은 다윗(14:10, 14)	신접한 자에게 물음(10:13)
다윗 집에 복을 내리심(14:3-7)	사울의 집에 죽음이 임함(10:6)
블레셋에 승리하게 하심(14:8-16)	블레셋에 패배하게 됨(10:2-6)
우상을 불태운 다윗(14:12)	다곤 신전에 매달린 사울의 머리(10:9-11)